전국매일신문
www.jeonmae.co.kr

(2026년 11월 23일 월요일 12면)

송파구의회, 제336회 정례회서 구정 현안 5분 발언

방이동 청사 부지 매각 철회 등

송파구의회 의원 8명이 제33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방이동 공공청사 건립과 위례선 트램 개통 지연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대책을 제안했다.

박순옥 의원은 방이동 공공청사 부지 매각 계획을 철회하고 LH와 사업비 분담을 다시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박지선 의원은 서울시에 위례선 트램 개통 지연 사유와 향후 일정 공개를 요구하고, 송파구에는 개통 전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주문했다. 최옥주 의원은 학교 체육시설 이용 실태를 조사해 3곳에서 5곳을 대상으로 주말 개방을 시범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위정희 의원은 지난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1천33명에 이른다며 종합지원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이승희 의원은 위기 아동과 가족이 기관 연계 이후 실제로 지원을 받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정 의원은 마을정원사 교육과 현장 활동을 연계하는 정원문화 조례 제정을, 김서윤 의원은 시각예술에 한정된 청년아티스트센터 입주 분야 확대를 제안했다. 김안나 의원은 삼학사로 가로수 꾸미기 사례를 들어 주민 주도 거리문화 활동을 골목상권 지원사업과 연계하자고 했다.

전봉우 기자 jeon6484@jeonmae.co.kr